

# 아파트 居住者의 家具와 住居用品의 所有 및 空間使用

— 전주시를 중심으로 —

The Possession and Space Usage of Furniture and Housing Goods by the Apartment Dweller - In case of Apartment in Chonju -

이 화 실\*  
Lee, Hwa Sil  
박 선 희\*\*  
Park, Sun Hee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basic data for better space plan of the apartment housing. It attempted to examine the possession and space usage of furniture and housing goods in three type floor plan. It also studied in relation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physical variable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Housewife age, educational level, family income, number of family members were affected variables to the possession of housing goods and furniture except furniture possession to housewife age.
- 2) It appeared similarity in the furnishing of housing goods and furniture in case of same floor plan.
- 3) Generally, the space of living room was used often in furnishing of furniture and housing goods.
- 4) Linear arrangement of sofa set and corner arrangement of Anbang furniture are a tendency to get a effective space for activities in living room.
- 5) The size of floor plan space was the most powerful variable to explain the possession and space usage of housing goods and furniture.
- 6) The scarce of space result in pressing the household living space hard. The storage space should be planned and chosen after consideration of human factors according to the tastes, character of the users, and the space factors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of unit plan and the size of each living space. In case of the small size plan, particularly, it needed to the Built-in furniture as a effective method.

---

\* 전북 김제 봉남중학교 교사

\*\* 전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아파트는 토지문제와 주택의 量産化 측면에서 볼때 적절한 주거형으로 그 기능적인 편리성때문에 크게 선호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따라 최근 공급물량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의 설계는 居住者가 不特定多數라는 특징을 갖게 되며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주생활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 따라 달라지는 수납물품의 양과는 무관하게 공간의 한 부분이 수납용으로 고정되어 버림으로써 공간의 융통성과 다용도적인 공간의 轉用을 방해하며<sup>1)</sup> 공간의 비합리적인 구성으로 주어진 공간 자체의 효율마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즉 집합주택이라는 건축계획상의 한계때문에 평면형이 일정한 型으로 고정되어 입주자들의 다양한 주생활이나 세대의 성장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주생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적절한 주공간의 대응을 위해서는 거주자들의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그들의 주생활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거주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적자원은 어느 곳에서나 위치에 따른 공간과의 사용관계 및 점유문제가 있기때문에 기본적인 주공간 계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획일적인 공간구성을 갖는 아파트에 있어서 각기 다른 거주자의 주거용품 및 가구소유 상태를 파악하고 그러한 용품이나 가구들의 공간사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면 공간활용을 고려한 입체적인 계획이 된다고 생각되며, 아파트 거주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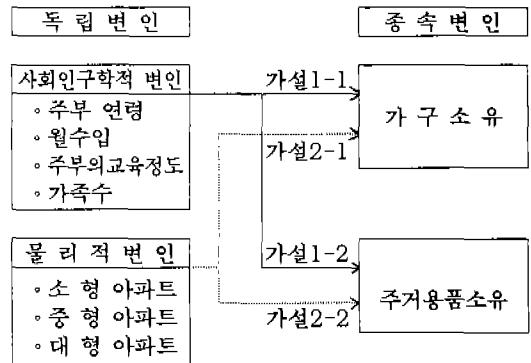
##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연구는 집합주거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평형에 따른 가구와 주거용품의 소유 및 공간이용 실태를 알아보고 가구와 주거용품 소유상태를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물리적 변인에 따른 차이점과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자는 전주시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
- 2) 동일 공간구조적 조건에 입각해서 실태조사시 동일한 아파트내의 동일평형에 한하여 조사한다.
- 3) 부엌용 싱크, 작업대 그리고 욕실의 위생 가구들은 건축적 요소의 일부인 일정한 스페이스계 가구로 인정하여 가구소유 조사시 제외시킨다.

## 3.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아파트내의 동일평형이라 할지라도 각 세대별 주거형태는 다르므로 가구 및 주거용품 소유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또한 평형의 크기유형에 따라 가구 및 주거용품 소유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을 하였다. 이에 따른 가설설정 개념도식은 <그림1>과 같다.



<그림 1> 가설설정 개념 도식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그 뜻을 제한한다.

1) 가구와 주거용품

가구는 일반적으로 인간공학적 측면, 이동성, 점유면적등 분류기준도 다양하며 그 범위에 있어서도 무수하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구와 주거용품을 구별하지 않고 가구에 주거용품을 포함시켜 연구되어 왔다.<sup>3)~5)</sup> 따라서 가구와 주거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하되 가구는 수납, 작업, 휴식등의 뚜렷한 기능을 지니면서 일정한 바닥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주거용품은 위의 가구 이외에 이동가능한 생활용품들을 지칭하고자 한다.

2) 공간 사용

본 연구에서 공간사용의 의미는 주거용품을 수납공간이나 실에 備置 또는 가구에 있어 配置상태로 국한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의 작성

1) 설문 구성

① 일반사항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 즉, 주부연령, 월수입, 주부 교육정도, 가족수등으로 구성하였다. 물리적 변인인 평형특성은 동일 아파트내의 동일 평형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대별 조사가 아닌 건축업체별로 평면도를 수집하여 내용을 파악하였다.

② 가구 및 주거용품 소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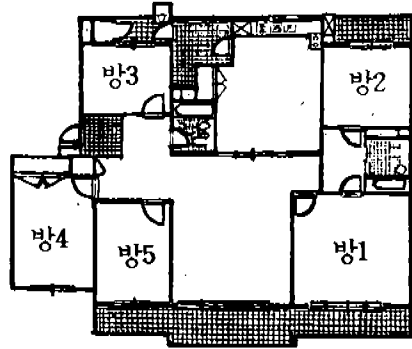
가구 및 주거용품 소유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목록을 구성하여 체크하게 하였다. <표1> <표2> 가구분류 기준은 주거학<sup>6)</sup>을 인용하여 기능별로 분류하였는데 전통가구를 별도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전통가구는 그 기능성 뿐만아니라 거주자에 따른 취향이나 생활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그 활용 실태를 알아 보고자 연구자가 임의로 구분하여 분류기준에 삽입하였다.

<표1> 주거용품 조사분류표

구분	종 류	구분	종 류
침 구 류	이 불	오 락 용 품	V T R
	요		전 축
	베 게		T V
	카 페 트	유 아 용 품	라 디 오
	돛 자 리		실내용그네
	방 석		장난감SET(大)
	(걸이용) 발		보 행 기
간이침대(야외용)	높이용자동차(大)		
스 포 츠 용 품	자 전 거	악 기 류	피 아 노
	스 케 이 트		오 르 간
	탁 구 대		키 타
	공		바이올린
	라켓(테니스/탁구)		첼 로
감 상 용 품	헬스기구	냉 난방 용 품	선 풍 기
	텐 트		에 어 콘
	배낭 SET		난로(석유,전기,가스)
	야외자리		재 봉 틀
품	벽 걸 이	작 업 용 품	전기청소기
	장식용모형		공구함(망치함)
	액 자		컴 퓨 터
	서 화 류	조 명 기 구	바닥스탠드
	수 화 석		책상용스탠드
	골 등 품		특수램프
	화 분		트 링 크
수족관(어항)	수 납 용 품	일 반 가 방	
분 재		옷 걸 이 대	

〈표2〉 가구 분류표

구분	종	류
수납용	장	식장
	책	장
	장	통
	식기	장
작업용	서랍	장류
	탁자	의자
	보조	상대
휴식용	화장	대
	소파	류
전통	침	대
	안락의자	의자
전통	문	갑
	반	닫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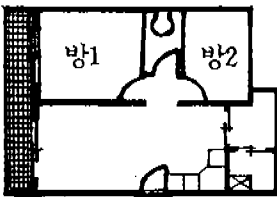


〈그림2-3〉 대형아파트 평면도(59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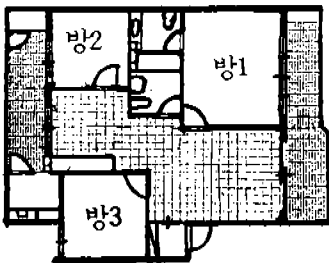
2) 관찰조사 도구

① 실별 備置사항

家口별 방문시 평형별 도면을 제시하여 각 장소에 따른 명칭을 기입하게 한후, 가구 및 주거용품 비치공간에 해당하는 장소를 기입하게 하였다. 평형별 아파트 평면도는 〈그림 2-1, 2, 3〉과 같다.



〈그림2-1〉 소형아파트 평면도(16평형)



〈그림2-2〉 중형아파트 평면도(30평형)

② 가구 配置사항

아파트에 있어 가족의 주된 생활공간인 거실과 안방의 가구 배치사항을 조사하였다.

2. 예비조사 및 본조사

예비조사는 본 연구의 평형의 크기유형에 따라 연구자가 조사하기 쉽고 아파트의 여러 환경 조건에 따라 우선 소형은 전주시내의 W 아파트 16평형, 중형은 K 아파트 30평형, 대형은 S 아파트 59평형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1993년 3월 15일에서 18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거주자 15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 설문조사 및 관찰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시기는 1993년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연구자 본인과 사전교육을 받은 가정학 전공자 1인이 담당하였다. 조사대상은 각 평형별로 30세씩 총 90세대를 선정하여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3. 자료처리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SPSS PC<sup>+</sup>를 이용하여 빈도수, 백분율, ANOVA-1 분석방법이 사용되었다.

### III. 조사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평면 규모에 상관없이 전체를 살펴보면, 주부연령은 27-39세가 54.4%로 가장 많아 중년이 하 젊은 계층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총수입은 100만원-180만원 미만이 47.8%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월급뿐아니라 상여금, 연금, 이자등이 포함된 월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을 감안할지라도 월평균 수입 100만원 이상이 80%나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현재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근접한 것으로 보았으며 조사대상자가 일반적 계층으로 적절한 표집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수를 보면 4인 가족이 41.1%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부부와 자녀2인이 보편적인 가족형태임을 알 수 있다.

평면규모별로 살펴보면, 주부연령은 소형과 대형에서 27-39세가 가장 많았고, 중형은 40-49세가 46.7%로 40대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 경우 소형과 중형에서 각각 63.3%, 66.7%로 나타났는데 비해 대형은 대졸이상이 63.3%가 나타나 대조적이었다. 월수입은 대형경우 180만원 이상이 66.7%로 나타났고 월수입 100만원 미만은 전혀 없었다. 가족수는 소형경우 4인이, 대형경우 5인 이상이 월등히 높았는데 대형경우 주부연령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면 가족형태에 있어 2세대의 핵가족 형태보다는 노부모와 함께 사는 3세대의 확대가족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구성이나 가족수는 평면규모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N=90)

구분	분포	소형		중형		대형		계	
		f	%	f	%	f	%	f	%
주부연령	27~39세	21	70.0	12	40.0	16	53.3	49	54.4
	40~49세	7	23.3	14	46.7	7	23.3	28	31.1
	50세 이상	2	6.7	4	13.3	7	23.3	13	14.4
학력	고졸 이하	19	63.3	20	66.7	10	33.3	49	54.4
	대졸 이상	11	36.7	10	33.3	19	63.3	40	44.4
월수입	100만 미만	10	33.3	8	26.7	0	0	18	20.0
	100~180만미만	16	53.3	17	56.7	10	33.3	43	47.8
	180만 이상	4	13.3	5	16.7	20	66.7	29	32.2
가족수	2~3인	5	16.7	9	30.0	4	13.3	18	20.0
	4인	21	70.0	11	36.7	5	16.7	37	41.1
	5인 이상	4	13.3	10	33.3	21	70.0	35	38.9

#### 2. 가구와 주거용품의 소유현황

가구에 있어서 수납용 가구는 평형의 크기에 따라 소유정도가 크게 차이가 났는데 이는 室의 수가 증가할수록 사용자에게 따라 각 방들을 個室化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별 수납가구가 많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화장대에 있어서는 주부들이 대부분 전용화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평형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휴식용 가구는 소형경우 소유정도가 매우 작고 대형은 월등히 높음을 볼수 있는데 이는 평형크기가 작을수록 입식보다는 좌식 선호를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통가구에 있어서는 문갑을 소유하는 비율이 의외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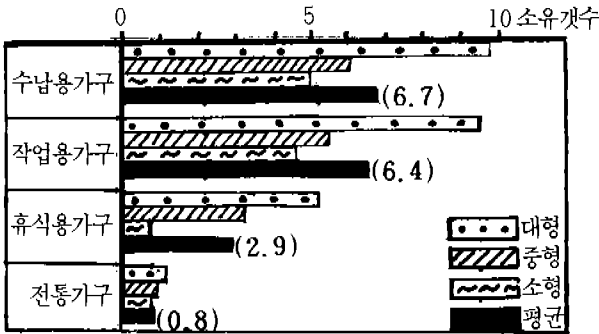
주거용품에 있어서 침구류를 보면 이불,요,베개 등은 소유정도가 크게 나타났는데 평형이 작아도 침구류 소유가 다른 주거용품 소유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결혼시 일제히 대부분의 침구류를 구입하는 경향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스포츠 용품에 있어서는 대형의 경우 월등히 높아 경제적 측면에서의 여유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냉난방용품은 대체로 선풍기, 난로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평형별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파트 건설시 입지조건 뿐만아니라 난방시설 또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육아용품은 중형은 소유정도가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부연령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준다. 오락용품은 TV가 소유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평형크기에 준해서 소유정도가 증가되었다. 이는 실이 많아질수록 각각의 오락용품을 실별로 비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조명기구는 책상용 스탠드가 가장 많이 소유되고 있었는데 이는 학령기 자녀를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 3. 가구와 주거용품의 공간이용

#### 1) 가구와 주거용품의 備置

가구의 경우 장롱, 화장대, 문갑, 반닫이, 침대등은 방1에 주로 비치하고 있으며 장롱, 침대등은 평형이 커질수록 각 방들에 두루 비치되어 있다. 책장과 책상은 안방을 제외한 자녀실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주거용품중 침구류는 대체로 방1 비율이 높는데 소유가구중 장롱이 많음과 관련이 된다. 대형은 반침 이용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소형과 중형은 반침이 없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성이 있는듯 하다. 스포츠용품은 대체로 거실과 테라스, 다용도실과 창고의 비율이 높으며 자전거는 문간에 비치하고 있었다. 감상용품은 대체로 거실이 주되게 나타났으며 화분등은 테라스 이용율이 더 높다. 냉난방용품은 조사시기가 4월 이어서인지 창고 비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악기류 경우는 피아노를 주로 거실에 두고 있으며 기타 악기류는 특정 공간없이 방들에 두루 비치되어 있다. 조명기구 경우에 바닥용 스탠드는 방1에 주로, 책상용은 방2, 3 비율이 많은데 이러한 공간은 자녀실로 많이 이용되고 책상이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듯 하다.



<그림3> 가구의 평형별 소유현황

< 표4 > 주거용품의 평형별 소유현황

구분	대형	중형	소형	평균
침구류	43.8	31.7	25.5	33.7
스포츠용품	9.1	5.7	4.7	6.5
감상용품	38.5	24.5	17.3	26.8
오락용품	6.4	4.3	4.6	5.1
육아용품	5.1	2.2	3.8	3.7
악기류	1.3	0.9	0.5	0.9
냉난방용품	3.4	2.7	2.3	2.8
작업용품	3.2	2.4	2.5	2.7
조명기구	2.4	1.3	1.3	1.7
수납용품	7.7	5.2	4.4	5.8

#### 2) 가구의 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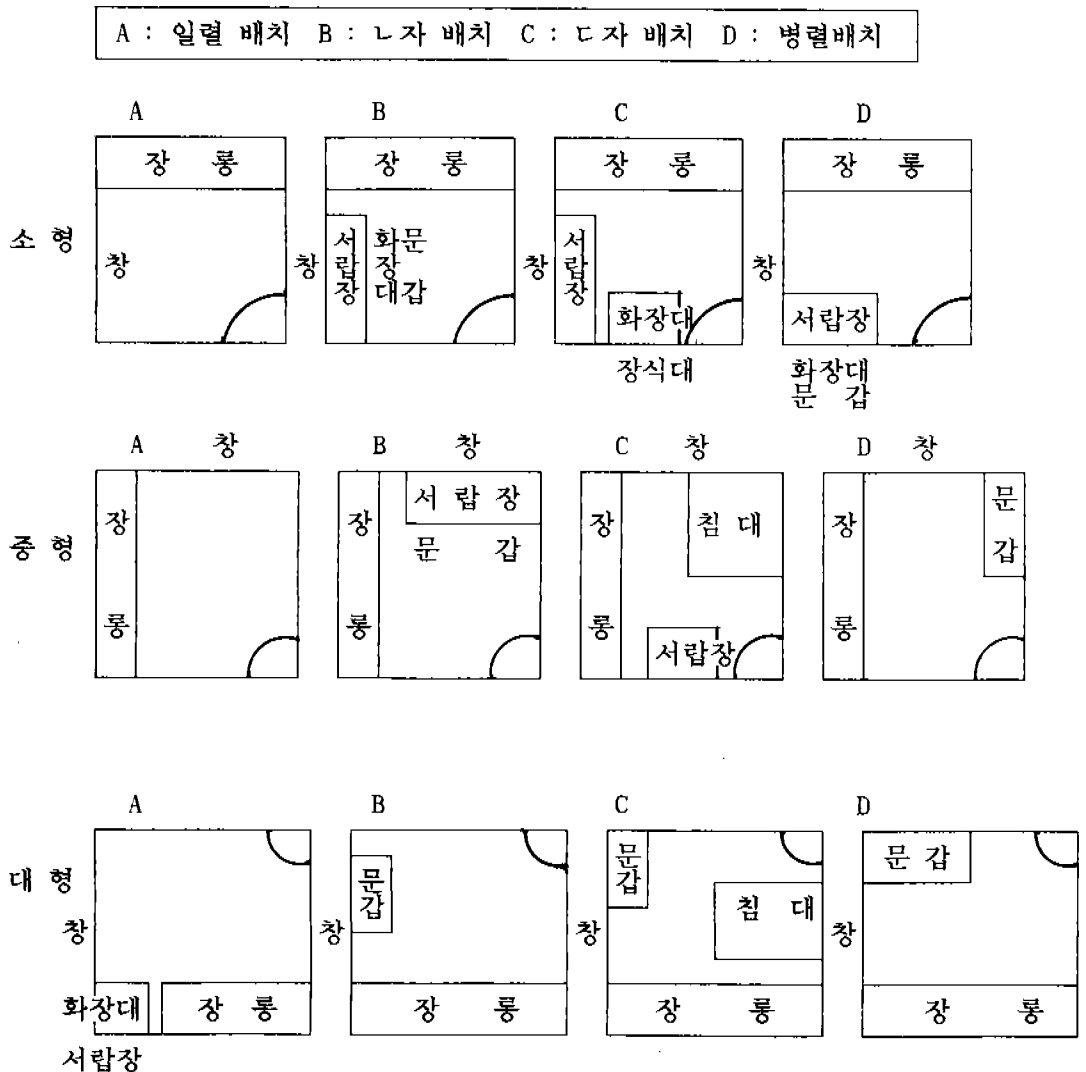
##### ① 안방의 가구배치

소형 아파트는 L자형이 5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일렬배치도 30.0%나 차지하였다. 이러한 것은 비좁은 공간에서의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형태를 선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중형 아파트는 L자배치가 50%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대형 아파트는 L자와 ㄷ자배치가 고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소형과 대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L자배치 형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② 거실의 소파배치

소형 아파트는 소파 보유정도가 적기에 노퍼니처형이 83.3%로 압도적인비율을 나타내며 ㄷ자나 병렬배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형 아파트는 일렬배치가 53.3%의 비율을 나타내어, 31-35평 아파트에 있어서 'ㄴ', 'ㄷ'자형 배치와 일자형 배치가 고르게 나타난다는 김미희<sup>7)</sup>

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대상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차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형 아파트 경우는 소형과 중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일렬배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평형의 크기가 커질수록 배치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림 4) 안방의 가구 배치도

(표5) 물리적 변인에 따른 안방의 가구배치 유형 (N=90)

물리적 변인	소형		중형		대형		계	
	f	%	f	%	f	%	f	%
일렬배치	9	30.0	8	26.7	3	10.0	20	22.2
ㄴ자배치	17	56.7	15	50.0	10	33.3	42	46.7
ㄷ자배치	2	6.7	2	6.7	9	30.0	13	14.4
병렬배치	2	6.7	5	16.7	8	26.7	15	16.7

(표6) 물리적 변인에 따른 거실 소파배치 형태조사 (N=90)

물리적 변인	소형		중형		대형		계	
	f	%	f	%	f	%	f	%
일렬배치	4	13.3	16	53.3	13	43.3	33	36.7
ㄷ자배치					4	13.3	4	4.4
병렬배치			1	3.3	5	16.7	6	6.7
ㄴ자배치	1	3.3	4	13.3	6	20.0	11	12.2
노퍼니처형	25	83.3	9	30.0	1	3.3	35	38.9
기타					1	3.3	1	1.1

4. 가설의 분석 및 논의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구 및 주거용품 소유

(가설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가구와 주거용품 소유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가구 소유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구 소유정도는 주부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유의적 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가구는 대부분 결혼시 혼수품으로 마련되고 있기에 젊은 연령층에서 기본적인 것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부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수납용 가구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주거용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구전체를 보면 주부학력에 따른 가

구소유정도는 유의적이었다.( $p < .05$ ) 월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유의적관계( $p < .001$ )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유가 많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가족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유의적관계( $p < .001$ )를 나타내며 이러한 결과는 이혼(1981) 연구에서 가구보유율은 가족수에 따라 변해간다는 사실과 일치하였다. 가족수가 많을수록 주거용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지어 생각할때 특히 수납용 가구 소유비율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또한 가족수가 많을수록 평형의 크기가 큰 곳에 거주하는 것을 고려해볼때 가족수 증가에 맞추어 실에 따른 가구량은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설1-1)의 검증결과 (가설1-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가설1-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주거용품 소유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주거용품 소유는 주부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유의적관계( $p < .05$ )를 나타낸다. 특히 육아용품등은 가족의 생활주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월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유의적관계( $p < .001$ )로 나타났다. 주거용품 소유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주거용품 소유는 가족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유의적 관계( $p < .001$ )를 나타낸다. 즉 가족수가 많아짐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용품들의 수가 증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설 1-2)의 검증결과 (가설 1-2)는 긍정되었다.

(가설 2) 물리적 변인에 따라 가구 및 주거용품 소유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물리적 변인에 따라 가구 보유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구 보유정도는 물리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통 가구는 유의적( $p<.05$ )으로 나타났으며 수납용, 작업용, 휴식용도 모두 유의도( $p<.001$ )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것은 평형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공간의 여유가 많고 또한 가족수 증가에 따른 가구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가설 2-1)의 검증결과 (가설 2-1)은 긍정되었다.

(가설 2-2) 물리적 변인에 따라 주거용품 소유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주거용품 소유는 물리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분석한 결과 주거용품 전체를 보았을때 물리적 변인에 따라 유의적관계( $p<.001$ )를 나타낸다. 그러나 주거용품중 육아용품, 작업용품은 비유의적으로 나왔는데 육아용품은 생활주기에 따른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작업용품은 각 가정마다 요구되어지는 사용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가설 2-2) 검증결과 (가설 2-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 IV. 결 론

1) 가구 및 주거용품의 소유현황에서 가구들은 대체로 평형의 크기에 따라서 소유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가 생활의 공간을 한정하는 관계로 평형이 적을수록 가구보다는 공간의 융통성을 고려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스포츠용품, 감상용품, 악기류, 오락용품, 작업용품등은 평형의 크기가 커질수록 소유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주며, 육아용품은 특히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주부 연령과 관련이 큰것으로 보여진다.

2) 가구 및 주거용품의 공간사용 실태를 보면, 먼저 室備置에 있어서 거실 이용율이 공통

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평면 구성이 다른 것에 국한하여 비치상태가 많이 다르게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소형과 대형은 가구 및 주거용품에 있어 특정한 장소에 놓기보다는 여러 곳에 분산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소형의 경우는 공간이 좁은 관계로 室기능별로가 아닌 하나의 실에 여러가지를 쌓아두는 일종의 창고와 같은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형의 경우 각각의 실들을 자녀방, 노부모방, 가정부방, 동거인방(친척등) 그리고 취미실등의 형태로 個室化하여 용도별로 국한하여 사용하기에 각 장소마다 여러 종류의 가구 및 주거용품이 필요하여 비치형태가 분산되어 있다. 같은 평형의 경우는 가구 및 주거용품 공간사용이 대체로 일치하는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평형의 크기, 평면형등에 따라 공간사용은 크게 좌우됨을 알수있다. 다음 가구의 配置상태를 살펴보면, 거실의 소파는 평형에 관계없이 일렬형 배치가 가장 많은것으로 조사되었고 평형의 크기가 커질수록 형태도 다양화됨을 알수 있다. 안방의 가구배치를 보면 침대 사용등의 입식화 여부에 준해서 가구배치 구성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리라 예측을 하였는데 실제 방1을 안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구배치는 'L'자형의 배치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가 室 사용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실이 기능을 고정하기에 실의 용도가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전통적인 우리의 주생활 일부가 반영된 형태라 생각된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구 및 주거용품 소유와의 관련성을 살펴볼때 대체로 유의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즉 주부연령에 따른 가구 보유정도와의 관련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간은 대부분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리

적 변인에 따른 가구 및 주거용품 소유와의 관련성을 볼때 상당히 유의도가 높아 양쪽 변인간의 관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유하는 가구 및 주거용품은 주택의 평면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때, 아파트를 계획하는 경우 가족수, 연령층, 경제수준, 평형의 크기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시설, 공간배치, 공간크기등을 다양화 시켜야할 필요성이 나타난다.

## 참 고 문 헌

1. 조성기, 저소득층용 공동주택의 수납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74.
2. 이정근, 소규모 주거공간의 효율 극대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1981.
3. 김종인, 주의식면에서 본 생활공간의 계획, 대한건축학회지, 1972.
4. 정경자, 아파트에서의 가구사용에 따른 입식 생활연구, 연세대학교, 1983.
5. 송규풍, 아파트 수납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86.
6. 조성기, 김일진, 주거학, 1987, p.128.
7. 김미희,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 연세대대학원, 1991.
8. 이 훈, 아파트 거주자의 가구사용에 관한 연구, 22집, 충북대, 1981, p.403.
9. 박영순외, 아파트 거주자의 물품 수납의식 및 만족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권, 4호, 1990.